

자본주의와 진보사상

(하웃즈바르트 저 / 김병연, 정세열 역 / IVP, 1989)

김기홍

I.

인간의 삶을 가장 제약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먹고 삶’의 문제이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 문제를 해결했는가? 자본주의 사회, 물질 생산량을 극대화하는 이 체제는 ‘어느 정도’ 이 문제에 긍정적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이데올로기의 종언’이라는 단어를 빌리지 않더라도 과거의 동구 사회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변혁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것이 이에 대한 작은 예증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삶에 대한 필요충분 조건일 수 있는가? 인간의 탐욕 즉 이기심에 근거한 재화 획득의 욕구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 사회는 ‘재화와 서비스’ 생산의 극대화에는 성공했는지 모르나 그 이상의 것을 잃어버렸다. ‘인간은 왜 사는가’에 대한 답을 이 체제는 결코 제시할 수 없다. 서구의 황혼이란 단어를 빌리지 않더라도 인간은 자기 상실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고, 물질 생산의 극대화가 인간의 삶에 끼치는 해악들을 도처에서 목격하고 있다. 물과 공기의 황폐, 가치 중립적 세계관의 득세, 인간의 자궁심 무산……. 자본주의 사회가 무엇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II.

이 책은 현재의 자본주의 사회(특히 서구사회)를 가능하게 한 정신적 動因을 분석하고, 그 맥락에서 서구 사회가 직면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자본주의를 분석하면서 자본주의의 매커니즘을 하나 하나 따지기 보다는 서구의 자본주의 사회를 가능하게 한 문화적 풍토를 강조하고 있다. 저자는 그것을 신앙에 가까운 '진보사상'으로 규정한다. 즉 현재와 같이 자본주의가 발전하게 된 것은 '인간의 진보(Human Progress)'를 용납하는(나아가 촉진하는) 사회 풍토가 조성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중세의 수직적 세계관(교회와 천국의 장벽), 인간보다 하나님을 우위에 두는 믿음(운명과 섭리의 장벽), 내세 위주의 생활관(실락원의 장벽)이라는 진보의 장벽이 제거되어, 수평적 세계관과 이신론에 의한 섭리의 재해석 그리고 지상에서 낙원을 건설할 수 있다는 믿음이 나타나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자본주의가 발흥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간은 자신의 이성과 합리를 신뢰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무한히 진보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자본주의의 정신적 토대라는 것이다.

저자는 이어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을 진보사상의 전거와 연결시키고 있다. 초기 자본주의의 반동으로 등장한 마르크스주의도 그 이면에는 계몽주의적 진보신앙이 깔려 있으며 따라서 자본주의와 마르크스주의는 서로 반목하는 자매와 같다는 것이다. 또 넓은 의미에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싸움은 누가 기술경제 진보의 열매를 차지하며, 누구로부터 이 열매를 거두어 들여야 하는가의 문제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진보신앙은 모든 영역에서 서구의 사회질서를 형성해 온 구원 요소이며, 서구인은 진보의 법칙에 순종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저자는 내부의 모든 것이 진보를 지향하는 사회체제가 어떤 저항도 받지 않고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 저자는, 내부적 약점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다. 경제적, 기술적 팽

창을 가능하게 해 준 환경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자본주의 체제 내에 실업과 인플레이션이라는 치유 불능의 거침돌이 생기며, 무엇보다 진보에 적응해야 하는 인간에게 무력감이라는 정신적 질병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인간의 무력감은 진보사상과 자본주의의 그리고 이들을 배양시켰던 문화의 위기를 반영하는 것이다.

III.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보사상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보다는 진보사상과 자본주의로 인한 서구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점이다. 저자는 그것을 사회개현(disclosure)이라는 개념을 통해 제시한다. 사회개현이란 ‘인간의 삶이 진보에 종속되고 수종드는 것에서 벗어나 그 본래의 의미와 가치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의 서구 사회는 폐쇄적인 터널 사회 혹은 닫힌 사회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새로운 열린 사회, 개방 사회를 위해서는 사회개현이란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사회개현을 위한 청사진이나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단지 사회개현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작은 사회 단위-가정, 교회-에서부터 그러한 시도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아니 일어나야 함을 주장한다.

사회개현의 과정은 진보사상에 대한 재해석 혹은 새로운 태도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이며, 그런 점에서 진보사상의 발흥을 가능케 했던 중세의 세 가지 장벽-교회와 천국의 장벽, 운명과 섭리의 장벽, 실락원의 장벽-에 대한 재검토를 필요로 한다. 즉 이 세 가지 장벽을 극복한 것이 진보사상 발흥의 계기가 되었지만, 서구 사회는 이 장벽을 극복함으로써 스스로를 해방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속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것을 ‘지나치게 쏘아버린(overshooting)’ 것으로 표현한다. 따라서 교회와 천국, 운명과 섭리, 실락원은 단지 타기해야 할 유산이 아니라 사회개현을 위한 새로운 준거들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 한다.

이것은 우리의 행동과 삶이 중세의 문화적 풍토에 다시 얽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문화와 역사를 바라보는 새로운 지평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우리의 노동을 가치있게 하고, 삶을 창조적이며, 물질 번영의 허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방향전환에 다름 아니며, 그 방향전환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로 인한 새 땅을 고대함으로서만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IV.

자본주의와 이를 기반으로 한 서구 사회에 대한 비전 혹은 해부는 수없이 많이 있다. 그러나 문화적 풍토 혹은 정신적 기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위기의 실체와 대처 방안을 밝힌 책은 참으로 드물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상당히 특이하다. 나아가 기독교적 관점에서 현재 사회의 지향점에 대한 작은 비전을 제시한 것은 이 책의 귀중한 성과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진보사상과 자본주의 혹은 마르크스주의를 연결시키는 점에서 다소 논리적 치밀성이 뒤떨어지기는 하지만 그것이 이 책의 성과를 훼손시키지는 않는다.

오히려 깨어 있는 영혼을 가진 사람에게는 현대 사회의 기이한 본질 -진보라는 우상숭배-에 대한 성찰을 가능하게 해주고 '이 자리에서 무엇을 어떻게?' 라는 물음을 다시 던지게 한다. 따라서 이 책을 경제학 혹은 사회학과 같은 사회과학적 방법론에 의해 판단하려는 시도는 무익할 수도 있다.

저자는 사회개혁을 통해 서구 사회의 위기를 극복하는 실마리를 포착하려 했는데 여기서 우리는 몇가지의 질문을 던져보려 한다.

첫째, 개혁의 과정을 통해 자본주의와 서구 사회의 위기 극복이 가능한가? 둘째, 저자가 제시한 개혁의 과정이 과연 가능한가? 셋째, 위 두 가지의 물음에 긍정적인 답변이 내려진다면 우리는 (혹은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은 저자가 책의 뒷부분에 암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논리적 검증을 거치거나 실험을 통해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오히려 선택의 문제에 더 가까울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어디에 서서 이 시대의 문제를 바라보아야 하는가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논리를 배제한 열정으로만 문제를 보라는 것은 아니다. 단지 자기의 인지를 보다 튼튼히 하라는 것이다.

세 가지 질문의 귀착성은 개인에게로 돌아온다. 저자의 말대로 '작은 시작'의 출발점은 사회변혁의 주체자인 개인일 수 밖에 없고, 따라서 개인의 개현이 사회의 개현을 향한 출발이 될 수 밖에 없다.

V.

결국 자본주의 사회가 진보신앙이라는 우상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을 개혁하는 길은 개인의 깊은 삶과 믿음이 일체화된 신앙고백에서 시작되어야 한다.